11차시
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배우는 솔선수범

학습 내용

1. 위대한 '멧'의 시작
2. '멧'처럼, '에스티 로더'처럼
3. '돌격 앞으로'가 아니라 '나를 따르라''다

1. 위대한 ‘멧’의 시작

- 뉴욕 중심가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유럽 구대륙의 풍성한 문화적 유산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지식인층이 자발적인 발의와 동참을 해서 만들어 낸 미술관이다.

- 개관 초기에 보잘것없는 규모의 건물에 하찮은 소장품 밖에 없었던 미술관이 세계 4대 혹은 3대 미술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소장품을 기증하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미술관의 성장에 기여했던 미국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덕분이었다.

2. '멧'처럼, '에스티 로더'처럼

- 수많은 미국의 지성인, 사회 지도층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지금과 같은 성장에 기여해왔지만,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건 화장품 재벌 에스티 로더의 막대한 기부 사례였다.

- 에스티 로더의 모친이자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 로더의 창업주인 로더 여사는 생전 기업을 경영하던 시기부터 리더의 솔선수범을 강조해왔고,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도 그는 늘 현장을 중시했고, 현장에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을 지원해 왔다.

3. ‘돌격 앞으로’가 아니라 ‘나를 따르라’다

- 과거 성공하는 조직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‘돌격 앞으로’를 외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조직이었다고 한다면, 현대의 성공하는 조직은 구성원을 진심으로 모실 줄 아는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맨 앞에 나서며 ‘나를 따르라’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다.